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7 Number 12 **12** 2019



성경과 세계관(3) 중세 교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가 시작되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나라에도 세워졌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성경에 기록된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죄로 인한 죽음과 고통,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전파하는 교회는 처음에는 어디서나 핍박을 받게 되어있다. 기존 나라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보편적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모두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대가를 받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대속과 내재를 통해서만 구원과 삶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마 10:22, 26)와 같이 예수님 자신을 전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넘어서 곳곳이 성경을 신뢰하고 복음을 전하면 이 진리는 주님의 섭리 하에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

교회의 타락은

시대를 불문하고

성경을 떠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을 지불해야 받는

은혜’로 바꿀 때 시작한다.

이는 그리스천 개인의

타락도 마찬가지다.

30년경 교회는 당대 세계의 최 강대국인 로마에서도 핍박을 받았다. 그러나 교회의 숭고한 노력으로 115년경에는 로마의 거의 모든 지역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으며, 결국 313년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며 크리스천의 자유가 허락되었다. 더 나아가 380년에는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 수십 년 사이에 교회를 가면 안되던 상황에서 오히려 교회에 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변화였다. 불법 종교였던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유일한 종교가 되어버렸다. 크리스천의 고난은 끝나고 시간이 지나며 부와 명예를 얻는 사람이 되었다. 겉보기에는 교회가 가장 바라던 대로 된 것이다.

중세시대(Middle Ages, 5-15세기)는 시기적으로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476년)된 시기와 동로마 제국(비잔티움 제국)이 멸망(1453년)된 사이를 일컫는다(중세라는 시대적 구분은 동양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된 380년과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중세시대라고 하면 쉽게 중세 교회를 연상하게 된다. 로마에서의 중세 교회는 부와 명예를 갖게 되며 긴장감을 잃기 시작했다. 또한 처음 받은 복음이 변질되어 성경과 동떨어진 교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미 잘 알려졌듯이 면죄부 판매, 마리아 숭배, 사제가 성만찬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체설, 고해성사, 자신의 몸을 흑사함으로 속죄를 받는 등이다. 모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교회에서 스스로 만든 내용들이다.

교회의 타락은 시대를 불문하고 성경을 떠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을 지불해야 받는 은혜로 바꿀 때 시작한다. 이는 그리스천 개인의 타락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거나 은혜에 더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타락은 시작된다. 더 바르게 살거나, 더 높은 위치에 있거나, 더 많은 학식을 갖추어야 더 주님께 가까울 수 있다는 식으로 자신의 어떤 노력과 위치가 첨가될 때에 타락으로 다가서는 것이다. 이 노력의 첨가는 거룩함이 아닌 죄로 가득 찬 자신의 인위적인 노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엄밀히 이 인위적인 시도가 타락의 발단이고 가장 큰 타락이다.

엄밀히 기독교는 ‘바르게 살라’는 노력의 종교가 아니라 ‘바르게 살 수 없다’는 진리이다. 어느 누구도 거짓말, 탐욕, 간음 등의 죄에서 한 순간도 벗어날 수 없

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필자의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앞으로 거짓말하지 않으실 분 있으세요?” 등의 우리의 타락한 상황을 지적할 때면 종종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지요?” “구원받은 후에는 이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라고 답하는 분들을 접한다. 교회 안에 있고, 우리 손에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이 얼마큼 타락한 것과 죄를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다.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행위로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담을 통해서 사는 존재가 된 것이다. 천국 가는 확신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남겨 주신 성령님을 통해 죄, 심판, 의에 대하여 꾸지람을 받는 존재이다(요 16:8).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성령님을 통해 보호받는 존재가 된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결코 바르게 살 수도 없으며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도 없는 존재이다. 결국, 의로워지는 것(칭의, justification) 뿐 아니라 그리스천으로서 성장해가는 것(성화, sanctification)도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바르게 살거나 거짓말하지 하지 않을 수도 없

는, 노력해도 불가능한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 이것이 철저한 현실이며, 스스로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주신” 복음이다(롬 8:1).



이 순수 복음을 갖지 않는다면 교회와 그 지체인 그리스천은 중세 교회와

같이 타락의 문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죄로 가득한 자신의 노력이 복음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its end, 그 끝)은 사망의 길이니라”(잠 14:12)의 말씀과 같이 바르다고 했던 사고지만 하나님과 전혀 다른

교회가 타락할 경우

언제나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각성이다.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도 동일하다.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생명과 사명의 잣대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성경이다. 중세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 보다 자신의 판단과 행위가 우선시되었으며 자연스럽게 타락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현 기독교 안에도 중세 교회와 같은 그릇된 신앙이 남아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중세 교회를 비판할 때면 그 윤리적 타락만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겉으로 드러난 타락 내면에 '값없이 받은 은혜'에서 '값을 지불하는 은혜'로 바뀌었다는 점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만약 현 기독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중세 교회의 어리석음을 똑같이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타락할 경우 언제나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각성이다.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도 동일하다. 중세 교회가 타락했을 때 등장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1517)'이다. 다른 하나는 교회 밖에서 교회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등장한다. 교회 밖에서도 교회가 타락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 오늘날에도 동일한 현상이다. 중세 교회가 타락하자 등장한 것이 근대의 시작으로 꼽는 '계몽주의의 탄생'이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호에 다루게 된다.

오늘날의 진화론적 사고는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진화론을 수용한다면 성경을 부정하거나 불신하게 되어 결국 '값없이 받은 은혜'에 인위적인 노력이 첨가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로 인해 부정확하고 죄로 가득 찬 자신의 판단을 신뢰함으로써 '값을 지불하는 은혜'로 넘어가며 결국 교회와 개인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지난 10월부터 설화, 종교, 철학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앞의 두 글에 이어 시대에 따른 세계관에 대하여 논할 예정이다.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구약학

창조과학선교회

www.His Ark.com / hisark@gmail.com



ACT News

창조과학탐사
해외 사역

창조과학탐사

뉴저지 필그림교회 지난 10월 14-18일 뉴저지 필그림교회(담임목사 양춘길)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 성경에 대한 신앙 전수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최근 등장한 타협이론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최근 이민교회에서 창탐에 참석하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반가운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 곁에 있을 때는 교회에 참석하다 대학과 취업을 하면서 대부분의 2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이민교회의 현 상황입니다. 여기에 진화론을 통한 성경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원인임을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뉴저지 필그림교회



전성교회 지난 10월 19-25일 전성교회(담임목사 이청근)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2년 전 담임목사님께서 참석하신 후 이번 창탐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는 귀한 시간과 함께 차세대에 어떻게 성경을 전할까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성교회는 차세대의 퍼센트가 타 교회에 비해 높은 교회라고 합니다. 이를 유지하고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시대가 진화론을 벗어나 성경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전성교회는 2021년 4월 창탐을 미리 예약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직교회 지난 10월 26일-11월 1일 베이직교회(담임목사 조정민)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베이직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교회에서 참석한 창탐이었습니다.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그분 안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그래서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진화론적 사고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1차 유학생 창조과학탐사 오는 2019년 12월 30일-1월 2일에 21차 유학생 창조과학탐사가 출발합니다. 그랜드캐니언 뿐 아니라 세도나, 규화목 페인티드 국립공원, 운석구 등을 돌며 세계관과 함께 성경적 증거들을 나눌 것입니다. 많은 유학생들의 참가를 권합니다. 유학생 창조과학탐사는 후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전성교회



베이직교회

에 참가비가 \$50로 아주 저렴합니다. 후원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과 2020년 창조과학탐사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에 총 32회의 창조과학탐사가 출발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에게서는 진화론에서 벗어나고 성경적 증거를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구령의 열정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는 2020년도 유학생 창조과학탐사로 시작을 합니다. 벌써 한 해 스케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창탐으로 바쁘게 해주신 주님과 참석자들에게 감사합니다. 2020년 창탐을 인도할 때도 저희 창조과학선교회 인도자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참석자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는 열매를 기도해주시시오.

이재만 선교사 한국과 대만 방문

이재만 선교사는 11월 한 달간 한국과 대만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학교에서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가는 곳마다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열매를 기도해주시시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조류 화석

The World's Oldest Bird Fossil



시조새

대학교 생물학 신입생들에게 가장 오래된 조류 화석의 이름이 무엇이나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아마도 진화의 아이콘인 '시조새'라고 말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틀린 답을 들은 것이다. 어떤 조류 화석이 가장 오래된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는 조류의 진화 그 자체에 관한 이야기만큼 왜곡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1861년 독일의 솔렌호펜(Solnhofen) 석회암 층에서 발견된 하나의 깃털로부터 시작된다. 그로부터 2년 후, 영국의 해부학자인 리처드 오웬(Richard Owen)은 자신이 관장으로 있었던 영국

박물관(the British Museum)을 위해 솔렌호펜에서 발견된 깃털을 가지고 있는 듯한 전체 화석을 획득하였다. 오웬은 생명체의 변화가 자연적 우연이 아닌 질서 정연한 법칙들을 통하여 발생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찰스 다윈과 충돌했다. 그러나 다윈과 그는 시조새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새라는 것에는 동의했고, 시조새는 그 왕관을 1세기 동안 유지했다.

그것은 다윈의 유명한 책<종의 기원>이 출판된 지 2년 만에 발견되었고, 다윈의 옹호자들은 시조새를 빠진 고리(missing link)로 소개했다. 그들에게 시조새는 진화의 흔적이 남아있는 파충류적 특징들을 가진 조류를 대표했다. 영국의 작가이자 사회 평론가인 H.G. 웰스는 그의 저서 '생명의 과학(The Science of Life)'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현 상황에서 시조새는 현대의 조류에 더 가깝기는 하지

만, 그 일반적 구성에 있어서는 조류와 파충류의 거대한 집단 사이의 완벽한 연결고리이다." 많은 연구들이 시조새는 단지 조류일 뿐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위 '연결고리'라는 주장은 뉴스의 헤드라인에 의해 더욱 견고해졌다.

이러한 상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 화석의 지질학적 위치는 진화와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가 독일 밖의 쥐라기 층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을 고려할 때, 쥐라기 솔렌호펜 석회암은 그 멸종한 조류를 공룡층 한 중간에 위치하게끔 한다.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진화론에 따르면, 알려지지 않은 초기 파충류가 공룡으로 진화했다. 그리고 공룡 중 수각류(티라노사우루스처럼 두 발로 이동하는 공룡)가 나중에 조류로 진화했다. 수각류 공룡과 조류 모두 각각 발의 앞쪽으로 향하는 세 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유사성은 그것으로 끝이다. 조류는 무릎으로부터 균형을 잡는 반면, 수각류의 다리는 인간의 다리처럼 엉덩이뼈로부터 흔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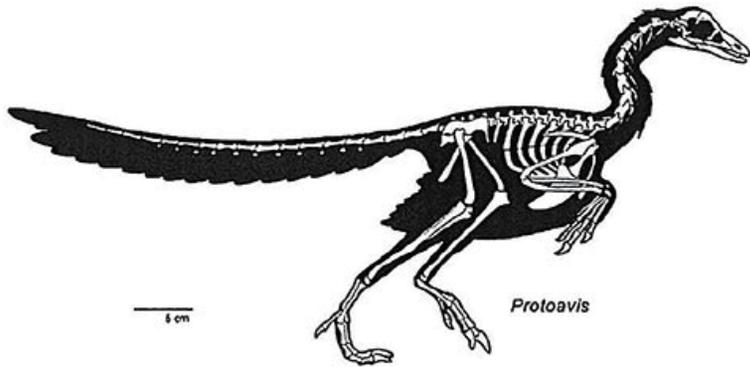


수각류

이런 진화론적 이야기는 모든 수각류 공룡이 조류가 되기 위해 모든 뼈들과 근육, 그리고 신경이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그리고 백악기 암석에 걸쳐 있는 1억 8천 6백만 년에 걸쳐 자연적 과정으로 적응하게 됐다고 가정한다. 엉덩이뼈로부터 걷는 동물과 무릎뼈로부터 걷는 동물들 사이의 이견의 여지없는 중간단계의 완벽한 부재는 그 진화론적 이야기를 반박한다. 마찬가지로, 최초의 시조새 화석에 남아 있던 수명이 짧은 깃털 단백질의 발견은 그 가정된 진화론적 연대를 반박한다.

조류의 진화를 뒷받침하는 화석의 순서는 무엇일까? 바로 파충류-공룡-조류가 아래로부터 위로 차례대로 발견되어야 한다. 즉 최초의 조류는 수백만 년에 걸친 파충류 조상의 진화가 정점에 이른 백악기 후기에 발견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각류 화석은 시조새의 쥐라기 환경보다 훨씬 더 위의 백악기층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마치 손자가 할아버지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시조새 화석들은 완벽한 진화를 말하기에는 너무도 낮게 위치해 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 그보다 더 낮은 층에서 진짜 조류를 발견했다면?

1983년, 고생물학자인 산커 채터지(Sankar Chatterjee)는 서부 텍사스에서 발견된 트라이아스기의 조류 화석에 대해 설명했다. 그것은 프로토아비스(protoavis)라는 조류에 속한다. 얼마나 맞지 않는 이야기인가! 채터지의 연구팀이 몇몇 프로토아비스 화석을 발견한 테코바스 층은 이미 진화론과 맞추기엔 가장 오래된 시조새보다 무려 7천 5백만 년이나 더 오래된 진화론적 연대가 부여되어 있다. 채터지가, “처음부터 프로토아비스는 수 많은 회의론적 비판에 맞닥뜨렸다”고 말한 것이 놀랄 일은 아니다.



프로토아비스

왜 진화론자들은 프로토아비스를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을까? 분명 그것의 해부학적 구조 때문은 아니다. 프로토아비스는 가슴 부위 중간에 커다란 용골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더 위쪽에 묻힌 시조새보다도 더 현대의 조류처럼 보인다. 프로토아비스는 용골 모양의 흉골을 가지고 있고 현대적 비행 조류들에게 전형적인 수프라코라코이드어스 도르래 시스템을 가진 어깨뼈를 이빨과 뼈가 있는 꼬리와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터지의 동료들은 그것이 수각류로

공룡들은 조류로 진화하지 않았다. 그 상상의 중간단계는 날지도 걷지도 못했다.

그것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겠는가? ... 그것은 깃털 전단계, 혹은 도마뱀과 같은 엉덩이와

같은 중간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고, 걷거나 날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부터 조류로의 진화에 맞지 않기 때문에 프로토아비스를 무시하거나 거부한다. 채터지는 파충류가 조류로 진화했다고 믿는 진화론자이다. 그는 단지 대부분의 고생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발생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증손자로부터 증조할아버지가 나왔다는 것과 같다.

2019년 8월, 시조새에 관해 위키피디아에서 묘사하고 있는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 이후 안키오니스, 샤오팅기아, 그리고 아우로니스를 포함한 더 오래된 잠재적 조류들이 확인되었다.” 깃털과 네 개의 날개를 가진 안키오니스는 확실한 조류이다. 그리고 그것은 수백만 년 전이 아닌, 불과 몇 천 년 전에 매몰되었음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시조새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의 깃털 단백질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위키피디아에 열거된 세 개의 새와 같은 화석들은 시조새보다 천만 년 더 오래되었을 뿐이다. 그 인터넷 웹사이트의 저자들이 프로토아비스의 7천 5백만 년을 언급하기에는 너무도 불편했음이 틀림없다.

공룡들은 조류로 진화하지 않았다. 그 상상의 중간단계는 날지도 걷지도 못했다. 그것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겠는가? 시조새는 H. G. 웰스의 “완벽한 연결고리”가 전혀 아니다. 그것은 깃털 전단계, 혹은 도마뱀과 같은 엉덩이와 같은 중간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고, 걷거나 날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조새는 소위 그것의 조상들보다도 더 먼저 묻혀 있다.

현재 가장 오래된 조류 화석의 영예는 트라이아스기의 프로토아비스가 가지고 있다. 그것의 최첨단 비행 해부학적 구조와 그것이 묻혀있는 낮은 암석층들은 조류 진화라는 왜곡된 이야기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Brian Thomas, Ph.D.

이충현 번역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



아이작 뉴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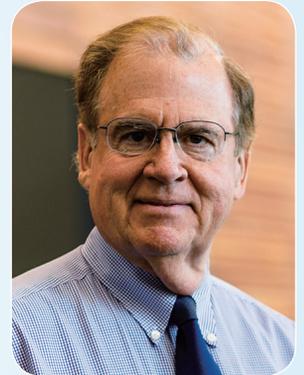
세계의 창조 기록을 믿었다. 층서학의 기본원리를 발전시킨 네덜란드의 지질학자 니콜라스 스테노 (Nicolaus Steno, 1631-1686) 역시 그러했다.

수백만 년의 사고가 대세가 된 19세기 초반에도 성경을 믿는 위대한 영국 과학자들이 있었다. 그들 중에는 화학자 앤드류 우레 (Andrew Ure, 1778-1857) 와 존 머레이 (John Murray, 1786?-1851), 곤충학자 윌리엄 커비 (William Kirby, 1759-1850), 그리고 지질학자 조지 영 (George Young, 1777-1848)이 있었다.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 (James Clerk Maxwell, 1831-1879)은 빛과 모든 형태의 전자기적 복사가 따르는 네 개의 근본 방정식을 발견하였고, 실제로 맥스웰의 방정식으로 라디오 전파가 가능해 졌다. 그는 말씀에 대해 신실한 학생이었으며 진화론에 확고히 반대하였다. 이들 및 다른 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은 성경을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으며, 그들의 뛰어난 과학적 업적의 동기 및 지적 기초는 바로 그들의 기독교적 믿음이였다. 오늘날에도 진화를 거부하고 성경에 쓰인 대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6일 동안 창조하셨음을 믿는 많은 과학자들이 있다. 물리학 박사 러스 험프리스(Russ Humphreys, Ph.D.)는 여러 업적 가운데 행성의 자기장 강도를 계산하는 모형을 개발하여 이것으로 외부 행성들의 자기장 강도

성경적 창조를 믿는 진정한 과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이작 뉴턴 (Isac Newton, 1642-1727)은 미분을 발견하고, 운동과 중력의 법칙을 구성했으며, 행성 궤도를 계산했고, 반사망원경을 발명했고, 수많은 광학적 발견을 이룩한 사람이다. 뉴턴은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믿음을 소유했다. 샤를 린네 (Carl Linnaeus, 1707-1778)는 스웨덴의 식물학자로서 동식물의 분류를 위한 이중 라틴어 작명법을 개발했고, 창

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그의 연구에 걸림돌이 되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험프리스 박사는 성경의 원리로부터 출발했기에 이러한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었다. 지구물리학자이자 성경적 창조론자인 존 바움가드너(Dr. John Baumgardner)는 정교한 격변적 판구조 운동 컴퓨터 모형을 개발했고, 이를 네이처(Nature)지에 발표하였다. 이 모형의 가정은 성경에 기록된 전지구적 홍수에 기반해 있다. 덧붙여서, 자기공명사진(MRI) 기법으로 혜택 받은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MRI 는 창조론자인 레이몬 대머디언(Dr. Raymond Damadian)에 의해 개발되었다.

분자 유전학에서 박사학위를 보유한 성경적 창조론자 조지아 퍼둠(Dr. Georgia Purdom/이 책의 공저자) 박사는 DNA, 돌연변이 그리고 자연선택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들이 진화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들은 진화가 일어나기 위한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것들은 성경적 창조를 지지한다.



존 바움가드너 박사

필자(Dr. Jason Lisle)는 일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태양 천체물리학 분야에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필자의 박사학위 연구에서, 필자는 엄청난 규모로 양 표면의 셀들을 뒤집는 패턴뿐 아니라 전에는 관찰된 적이 없는 초대형 유체덩어리(Supergranule, 태양 표면을 덮고 있는 셀들 저층에 형성되는 거대한 유체덩어리로 직경 약 35,000km의 크기이며 초속 0.5km로 움직이고 24-48 시간 동안 지속된다)들의 극점 배열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태양표면의 경계 유체에 대한 여러 특성들을 연구하였다. 창세기의 처음 몇 장이 쓰여진 사실 그대로라는 확신이나 연구에 걸림돌이 되었는가? 오히려 그 반대이다. 논리적인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셨기에 나와 여러 창조론자들은 논리, 조심스런 관찰과 실험을 통하여 우주의 면모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 이 글은 세계관 전쟁(War of the Worldviews) 중 ch.10 Can Creations be “Real” Scientists?(Dr. Jason Lisle)의 일부를 발췌한 글입니다.



이 기사는 창조과학탐사에 참여한 자들에 의한 간증 소감문으로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홈페이지 www.hisark.com 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밟는 미국 땅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다. 정말 넓고 넓음을 느꼈다. 말로만 듣던 창탐. 하루하루 새로웠다. 하나님을 안다고만 했던 것이 눈으로 보고 들으니 사실임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해짐을 믿는다. 눈 앞에 펼쳐진 광경들이 형언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왔는데 심판 전에 광경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는 선교사님의 말씀이 더 공감되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성경이 사실임을 전파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보고 듣고 느낀 것 잘 전달하겠습니다. 귀한 만남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 <맑은샘교회/남유현>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창조과학탐사가 진행될수록 얼마나 진화론에 젖어 있었고 유신론적 실존주의에 빠져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판타지 소설처럼 믿기 힘들지만 교회에서 믿으라고 하니 믿는 척 흉내만 내고 있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창탐 기간 동안 이재만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성경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과 내 마음의 빈 곳을 주님으로 채우겠다는 고백을 하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창세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숙제가 생겼지만, 주님의 지혜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아이들이 진화론에 많이 젖어 들기 전에 이런 좋은 강의를 듣고 올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음 창탐은 남편과 함께 한번 더 참여하고 싶습니다.<광주성암교회/김은미>

창조과학탐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가족여행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현실이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에 감사 드립니다.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신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광주성암교회/김은영>

저는 여기 오기 전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만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속에 진화론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학생으로서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부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 한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에 그 말씀은 저에게 충격으로 와 닿았습니다. 창조과학탐사를 하는 모든 순간마다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과 부모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저를 스스로 축복받는 아이라고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광주성암교회/나예원>

창조과학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막연히 알고 있었던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번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확신하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광주성암교회/문경원>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 성경의 진실, 창조의 건설을 알아가는 "창조과학탐사"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재만 선교사님의 강의와 창조의 현장을 탐사하며 그 동안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진화론을 하나씩 꺼내어 끼우게 하시고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증명해주는 강의를 통해 창조론의 사실과 성경에 대한 확신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동안 창세기의 중요성을 뒤로한 채 맹목적인 믿음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돌아가서도 내 삶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고, 잃어버린 한국의 세대 앞에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이 부르심과 사명 앞에 달려가는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더 악한 세대로 변해가는 다음세대를 이끄는 사역자로서 더 자세히 공부하고 알아가며 그 아이들을 위해 더 기도하여 증거하겠습니다. 준비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보고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광주성암교회/이재석>

진화론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제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깊은 곳까지도 파고들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인 삶을 살기엔 너무 예수님을 몰랐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성경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 곳으로 초대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광주성암교회/이진희>

2019/2020 ACT Schedule

11/18-22	창조과학세미나 (대만국제은혜신학대학원), 이재만
12/4	창조과학세미나 (충현선교교회), 이재만
12/6-8	창조과학세미나 (미네소타 다하나교회), 이재만
2020년	
12/30-1/2	창조과학탐사 (21차유학생창조과학탐사), 이재만
1/12-20	창조과학탐사 (일산산성교회), 이재만
2/10-17	창조과학탐사 (대구화원교회), 이재만
2/10-14	창조과학탐사 (일산대림교회), 김낙경
2/18-24	창조과학탐사(hold), 이재만
3/10-12	창조과학탐사(미남침례한인총회), 김낙경
4/3-5	창조과학세미나 (워싱턴은누리교회), 이재만
4/7-14	창조과학탐사 (천안아산제자교회), 이재만
4/19-23	창조과학탐사 (임마누엘교회), 이재만
4/25	창조과학세미나 (샌디에고새소망교회), 이재만
4/27-5/3	창조과학탐사 (기독교미래연구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